



## 안전의 **안나카레니나** 법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연구교수  
**권혁면**

얼마 전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영화 <안나카레니나>의 마지막 장면인 여배우가 기차에 뛰어들어 비극적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은 ‘안나카레니나 법칙’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카레니나의 첫 구절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나카레니나 법칙이다. 잘되는 집안은 다들 비슷하게 근심이 없고 건강하며 화목하지만, 안되는 집안은 애정이든 금전이든 자녀든 천차만별의 이유로 불행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가장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가족구성원으로만 한정하면 충분할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은 가족 구성원이 밖에서 하는 행동들과 그들이 교제하는 이들의 성향까지 모두 파악하여 행여 그를 불

행한 상황으로 이끌만한 요소가 보이면 사전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제거한다.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서 그 영향이 본인을 거쳐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접하곤 한다.

요즘 금융위기 및 세계화 등으로 영업환경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급사슬로 연결된 현재 상황에서 원청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해 어떤 경로로 얼마나 책임을 지는게 합당할까?

무한 경쟁시대에 기업이 생존을 위해 외주화 및 직원의 비정규직화는 시대를 거스르기 어려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기업의 안전보건책임을 3차, 4차 협력업체까지 모기업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상법상 서로 독립적인 기업간의 관계를 고려 할때 규제적 접근 방법에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안전 선진국의 유명 기업들은 재하청 차수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의 수준을 모기업의 수준과 동일하게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필자가 작년에 만나본 독일 벤츠사의 안전담당 임원의 설명대로 어느 단계의 협력업체라도 그 곳에서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생기면 언론은 부품 사용처이자 대기업인 벤츠사를 문제 삼기 때문에 벤츠에 납품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 회사는 벤츠의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를 보더라도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언론은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인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 하였으며, 지하철 스크린 도어 보수 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문제로 원 도급자를 넘어 해당 지자체까지 언론의 포화를 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은 가족구성원의 교체 범위 내의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관리 하듯이 기업의 사업주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보건수준을 모기업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업성공의 필수 요소가 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나라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은 지난해 무재해를 달성하였다. 협력업체 재해율도 2011년 1.48%에서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원청인 두산 인프라이코어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한 덕분이라고 한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려 양쪽 모두의 재해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예쓰오일(주) 울산공장은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컨설팅 심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은 사내 협력업체가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여 협력업체 스스로 작업관련 잠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30여

만 개 사업장, 특히 근로자가 5인 미만인 170여만 개 사업장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일일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의 해결 방법은 앞에서 사례로 설명한 모기업-협력업체의 공존을 통하여 안전보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독불장군의 시대는 지나갔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나라이든 안나 카레나나 법칙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봄 직하다. 🍻